

저소득층 일인가구 및 非일인가구의 가계재무상태 분석

Analysis on Financial Statuses of Single and Non-single Low-income Households

계명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부 교수 김성숙*

Keimyung Univ.

Associate Professor : Kim, Sung sook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low-income households' financial statuses and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single-person and non-single person households according to the financial indexes used for evaluating financial security and growth status developed based on financial ratios. Using 2009 KLIPS(Korean Labor & Income Panel Survey) data collected by the Korean Labor Institute, the satisfaction levels from the indexes were analyzed and compared between the two household types. The results showed that 46.0% of single-person households were not satisfactory in terms of all financial growth indexes but were partially satisfactory in terms of all financial security indexes. These householders tended to be females and in their 70s, who lived in Seoul or in a suburb of Seoul, Korea. They reported problems with a lack of financial growth possibilities. 47.0% of non-single person households were not satisfactory in terms of all financial growth indexes but were partially satisfactory in terms of all financial security indexes. These householders tended to be males in their 60s and 70s with no job who were living in Seoul or in a suburb of Seoul, Korea. They reported having low level of liquidity and high level of debt redemption. 42.6% of single-person households were not satisfactory in terms of both financial security and growth indexes partially. These householders tended to be females in their 20s or 70s who were living in rural areas. They reported problems related to an adverse balance between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s and a large scale of debt. 43.1% of non-single households were not satisfactory in terms of both financial security and growth indexes partially. These householders tended to be males in their 60s or 70s and homeowners. They reported problem related to an adverse balance of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s and high a level of housing expenditures and liquidity. The research findings have implication for policy makers considering financial support programs and welfare programs for low-income householders, considering the recent changes in households structures.

▲주요어(Key Words) : 일인가구(single-person household), 非일인가구(non-single person household), 재무비율(financial ratios), 가계재무상태평가지표(indexes for evaluating financial status)

I. 서론

외환위기 이후 한국에서는 사회적 양극화현상이 뚜렷하게 전개되어 저소득층이 더욱 확대되었다. 통계청 자료(2011)에

따르면 '상대적 빈곤율'은 2003년 13.2%에서 2009년 15.4%로 증가한 반면 중산층의 비율은 2003년 67.7%에서 2009년 62.6%로 감소하였다. 즉 근래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수의 중산층이 저소득층으로 변모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2009년 말 현재 부채를 갚지 못해 신용상태가 좋지 못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199만 명 정도이고(국회입법조사처,

* 주저자 · 교신저자 : 김성숙 (E-mail : kssch@kmu.ac.kr)

2010), 이를 OECD 기준에 따라 빈곤계층을 추산하면 300만 가구에 달한다(조선일보, 2010.3.8).

저소득층가계는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낮은 교육수준,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상의 지위 등 구조적으로 경제적 복지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소득 및 취업구조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일시적이며 작은 경제적 자극에조차도 쉽게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공통적 특징을 가진다. 가계의 재무상태에 따라 저소득층가계는 다양하다. 우선 사회보장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 저소득층가계는 기초생활수급대상 가계와 같이 소득수준이 공적인 최저생계비 수준조차 도달하지 못한 빈곤가계, 공적인 최저생계비 수준은 아니지만 절대적인 빈곤상태에 처한 가계, 절대빈곤계층은 아니지만 중산층에 편입되지 못한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다. 또 부채의 보유와 규모, 그리고 부채상환능력에 따라 저소득층가계가 겪는 재무적 어려움은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저소득층가계에서 채무불이행자의 비중이 높겠지만 부채를 전혀 가지지 않는 저소득층가계도 있을 것이다. 그 외 가계의 기초적인 생활비 마련의 가능 여부, 비상사태 등 위험에 대한 대비여부, 주택마련 및 주거비 부담 등 기본적인 재무육구 충족에서부터 노후준비, 자녀교육투자 등 가족의 성장을 위한 재무육구 충족 여부에 따라 저소득층가계가 겪는 재무적 문제는 다양하다.

그런데 빈곤계층 혹은 저소득층에 관한 여러 분야의 국내 선행연구를 고찰해보면 외환위기 이후 빈곤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가계의 경제구조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빈곤에 관한 경제학 분야의 연구는 주로 절대빈곤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정책적 측면에서도 절대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주력하여 왔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빈곤상태가 아닌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아직까지 학술적인 분야에서 차상위 빈곤층에 대한 연구는 실태파악에 한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빈곤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학' 분야의 연구들은 전통적으로 기초생활 보장제도와 수급대상자 선정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최근에는 빈곤 노인 또는 빈곤 여성들로 연구의 범위가 좁혀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가계경제학' 분야에서는 빈곤가계에 대한 관심보다 경제적 자원이 많은 중산층 이상의 가계에 주로 관심을 보여 왔다. 그리고 저소득층가계의 개인재무관리에 대한 연구에서는 '채무불이행문제'에 집중되어서 이 경우 채무문제를 가지지 않은 저소득층가계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저소득층가계의 재무상태나 금융이용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며 이는 금융권의 저소득층에 대한 관심부족을 반영한다. 이렇듯 저소득층가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이유는 저소득층가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 자료가 부족하고 재무적 관점에서 이들의 문제를 다루려는 시도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가계의 재무상태는 가족원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우선 소득을 획득할 수 있는 근로자의 수에서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소득수준의 가계일지라도 생계비의 수준이나 지출구조가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여운경·양세정, 2001) 경제적 복지수준도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소득과 소비, 저축, 재산 등을 기초로 구성된 재무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재무상태 척도의 수치가 같다고 할지라도 가족원수에 따라 달리 해석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 평균 가족원수는 2009년도 2.76명으로 2000년 3.13명에서 0.37명 감소하여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가족 가운데 일인가구는 2000년 226만 가구에서 2010년 347만 가구로 급증하였다. 즉 총가구 대비 일인가구의 비중은 2000년 15.6%에서 2010년 20.3%로 급격히 높아졌으며(통계청, 2011) 일인가구는 S-Generation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킬 정도로 사회 집단의 변화의 중심에 있다. 또 일인가구의 특징을 분석한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2010)에 따르면 일인가구는 저소득과 고령화 심화의 특징을 지닌 것으로 보여 저소득층가계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변수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인가구와 비일인가구의 가계경제구조의 분석이 새로운 가족구조의 변화를 반영하는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일인가구와 비일인가구로 구분하여 저소득층가계의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보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가구형태별로 저소득층가계의 재무상태를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가구형태별 저소득층가계의 소득, 소비, 저축, 재산상태 및 이를 기초로 한 재무비율을 분석하여 재무상태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저소득층가계의 재무상태에 근거하여 가구형태별 가계 재무상태 유형을 추출하고 각 유형별 사회경제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급증하는 저소득 일인가구에 대한 정책 수립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저소득층의 정의와 현황

많은 빈곤에 관한 연구들은 사용 자료의 차이, 빈곤선의 차이, 개별가구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저소득층의 규모에 대한 정의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저소득층의 정의는 빈곤선의 개념을 포괄한다. 빈곤선이란 빈곤한 상태에 있는 계층을 규정하는 소득의 수준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지금까지 빈곤선의 개념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절대빈곤수준을 의미하는 최저생계비와 상대빈곤선이 활용되어 왔다. 절대빈곤선은 중앙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최저생계비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다. 또 상대빈곤선은 OECD 기준(중위소득, 40%, 50%, 60% 이하) 중 중위소득의 50%를 적용하기도 한다.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차상위계층을 정부가 결정한 최저생계비의 120%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적 측면에서 저소득층을 규정해본다면, 우선 보건복지부의 여러 저소득층 대상 정책으로서 이의 복지지원대상은 자활공동체 및 저소득계층을 포함하고 있다(윤홍식 등, 2005). 여러 언론기관이나 정부기관에서 언급한 생활경제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집단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실업자, 장애인, 노인, 채무불이행자, 다중채무자, 저신용등급자, 저소득 층 등이 있다. 이러한 문건들을 볼 때 취약계층의 공통적 특징은 '빈곤성'과 '자본에의 소외'이다.

소득의 양극화 측면에서 볼 때 1997년 이후 8년간 중산층 비율이 5.3% 감소한 반면, 하위층은 3.7%, 상위층은 1.7% 증가하였다. 따라서 중산층에서 하위계층으로 이동한 인구는 174.7만명으로 나타났다(민승규 등, 2006). 또 OECD 기준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 빈곤층 가구가 305만8000가구를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 300만 가구를 넘어섰으며 지난 한 해에만 13만4725 가구가 늘어났다(조선일보, 2010. 3. 8). 빈곤층은 1인 가구 이상까지 합쳐 집계한 2006년 269만 가구에서 2009년도까지 3년 사이 37만 가구나 늘어났으며 전체 가구 수(1,692만 가구) 가운데 2006년 16.7%에서 3년 사이 18.1%로 증가하였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시기와 2003년을 전후 신용위기 과정에서 상당수의 중산층이 저소득층으로 전락하였다. 또 2005년 이후 우리 사회의 소득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으며, 현재의 정부도 서민생활안정대책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는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2. 일인가구에 관한 선행연구

일인가구는 독신가구, 독거가구, 단독가구 등과 함께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독신가구는 미혼,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하여 현재 비혼(非婚)의 상태 즉 법적 배우자가 없는 상태의 가구를 의미한다. 반면 일인가구는 법적 배우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거주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공유하지 않는 가계도 포함하고 있으며 이혼의 전단계인 별거상태에 있는 경우나 최근 사회현상이 된 기러기야빠, 주말 부부와 같이 일시적인 별거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함하기 때문에 독신가구와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선행연구에서는 독신가구 또는 단독가구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했지만 본 연구의 주제는 가족관계와는 관련이 없고 성인 한 명이 단독으로 거주하며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인가구가 더 적합하다.

우리나라 일인가구는 2000년에 226만 가구(15.6%)에서 2010년에는 347만 가구(20.3%)로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일인가구는 2020년에는 411만 가구(21.6%), 2030년에는 471만 가구(23.7%)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2010)의 통계청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 따르면 일인가구 가운데 60대 이상인 경우가 46.9%, 40-50대의 경우가 29.9%, 20-30대인 경우가 23.0%로 고령의 일인가구가 과반수에 육박하고 있었다. 또 일인가구는 여자인 경우가 66.4%로 남자인 경우인 33.6%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일인가구의 직업별 구성비를 보면 기타(무직 및 분류불능)의 경우가 49.3%나 되었으며 단순노무종사자가 14.9%,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가 13.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7.8%,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가 4.8%, 사무종사자가 4.7%,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가 4.4%, 관리자 0.5%,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0.1%로 나타났다. 일인가구의 주거비, 식료품비, 보건비 지출, 그리고 세금, 사회보장비 등으로 구성된 비소비지출의 비중이 전체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현대경제연구원, 2010).

일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연구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여성 일인가구나 노인 여성가구를 다룬 연구가 다수 있으며(박재간 등, 1996; 성지미·이윤정, 2001; 박정윤·김진희, 2002; 심영, 2002; 여윤경, 2003; 이윤정·김순미, 2004; 김년희·채정숙, 2005) 최근 남성일인가구에 대한 연구(차정숙, 2007)가 있었다. 30~40대 일인가구주 1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심영의 연구(2002)에 따르면 대출 이상의 고학력 가구주가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았으며 주택마련비용과 신용카드과다 사용으로 인한 부채를 지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의 경제상태와 경제적 불평등 정도를 분석한 성지미·이윤정의 연구(2001)에 따르면 노인 일인가구는 노인부부가구나 자녀동거 노인가구에 비해 소득과 지출, 저축과 부채액수가 모두 낮았으며 경제적으로도 불평등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세정의 연구(2000)에 따르면 노인 부부가구의 소비지출액이 노인 일인가구의 총 소비지출액의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 일인가구는 일반 노인가구에 비해 평균소득이 낮아 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질병이나 건강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윤경, 2003; 이윤정·김순미, 2004; 김년희·채정숙, 2005). 남성 일인가구와 여성 일인가구의 특성을 비교한 선행연구들(이윤정·김순미, 2004; 심영, 2000, 2002; 김년희·채정숙, 2005)은 거의 유사하게 남성 일인가구의 경제상태가 여성 일인가구보다 양호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반면 자산규모면에서는 다소 상반된 연구결과가 있다. 남성 일인가구가 상대적으로 충분한 은퇴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여윤경, 1999)가 있는 반면 남성 일인가구의 총자산액이 여성

일인가구에 비해 유의하게 적거나 부채보유율이 남성 일인가구가 여성 일인가구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심영, 2000; 김년희·채정숙, 2005).

3. 재무상태 평가에 관한 선행연구

가계재무상태의 평가는 가계경제구조에 대한 분석과 이를 활용한 재무비율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다. 가계경제 구조는 주로 가계의 소득과 지출, 자산상태를 분석함으로써 파악된다. 그리고 가계의 재무상태를 나타내주는 지표로 가계재무비율을 이용할 수 있다. 순자산 축적의 분석이나 저축의 분석은 단순지표를 활용한 경우이다. 이처럼 단순한 지표는 모든 재무상태 분석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가계재무상태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발전된 것이 다양한 재무비율을 이용한 분석(Griffith, 1985; Lyton et al., 1991; Prather, 1990; DeVaney, 1993; Garman & Fogue, 1994)이다. 가계재무비율은 가계재무상태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기에 재무담당이나 재무설계사 가계의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진단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국내에서는 박명희 등(1996), 양정선(1997), 최윤지와 최현자(1998), 안승철과 김년희(2001)는 재무비율을 적용하여 한국가계의 재무상태를 분석하였다. 최현자 등(2003)은 기존의 재무비율의 척도가 주로 미국 등 서구국가의 연구에 기초한 것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국 가계에 적합한 재무비율을 개발함으로써 안정성지표, 성장성지표 차원에서 도출해내고 그 준거기준을 개발하였다. 허경옥과 한수진(2005)은 소득/지출비율, 유동성비율, 자산/부채비율로 구분하여 재무평가지표를 구성하였다(<표 1> 참조). 그런데 재무비율을 이용한 분석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재무비율에 대한 정의가 일치되지 않는 점이다. 재무비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사대상에 따라 어떠한 재무비율이 적절한지를 결정해야 하며 재무비율의 구성항목을 측정하는 적절한 방법을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러 학자에 의해 채택된 재무비율은 세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소득과 지출의 흐름을 나타낸다. 가계의 재무상태를 반영하는 현금흐름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소비지출/소득, 저축/소득, 주거비지출/소득, 부채상환액/소득 등이 중요한 비율로 채택되어 왔다. 두 번째 부류는 부채와 자산의 상태를 나타낸다. 이는 가계의 재무상태를 반영하는 자원의 축적상태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부채/자산, 유동자산/부채, 금융자산/총자산, 실물자산/총자산, 투자자산/총자산 등이 주로 이용되어 왔다. 마지막으로 자산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상의 요소들과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소비지출/소득과의 비율을 교차로 활용하는 지표로 금융자산/월평균가계소득, 유동자산/월평균소비지출 등이 이용되었다. <표 1>에는 각 학자들이 연구에서 이용한 재무비율과 준거기준을 제시하였다. 최현자

등(2003)이 개발한 가계재무상태 평가지표는 그후 성영애 등(2004), 김민정과 최현자(2007)의 후속연구를 통해 그 타당성이 검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에 한국가계에 적합하게 개발되었으며 타당성 검토 등 후속연구가 이루어졌던 최현자 등(2003)의 가계재무상태 평가지표를 기초로 하였다.

소득계층별로 가계경제구조를 분석한 연구들은 가계소득 계층에 따른 소비지출을 분석한 연구(배미경, 1998; 소연경, 2000; 이성립, 2002)과 소득계층별 가계재무구조를 분석한 연구(배미경, 1998; 소연경, 2000; 이승신, 2003; 허경옥·한수진, 2005)가 있다. Fan 등(1992)은 소득변화에 따른 부채비율을 추정하고 가계재무분석을 위해서는 부채관련 비율 및 지표의 분석을 강조하였다. 배미경(2001)은 저소득층의 복지향상을 위한 소득재분배 효과와 관련된 경제정책을 마련할 때 저소득층의 가계 특성을 보다 세분화하여 연령이나 기타 인구사회학적 집단으로 분류하여 복지프로그램의 적용성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를 강조하였다. 소연경(2000)은 저소득층을 가계소득을 근거로 하위 30%로 정하고 IMF전후의 소비지출 구성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은 IMF 전보다 소비지출이 15% 감소하여 다른 소득계층보다 더 많이 감소하였음을 밝혔다. 이승신(2003)은 저소득층의 가계재무구조와 상태는 매우 불안정하고 가계부채 상환능력이 부족하며 연간소득대비 상환부채규모가 큰 것으로 평가하였다. 허경옥과 한수진(2005)은 하위 25%를 저소득층으로 조작적 정의하고 재무구조를 분석한 결과 금융자산을 이용하여 총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부채상환능력이 가장 낮으며 재정적 불안정성이 크다고 진단하고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재정관리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방안이 모색될 것을 제안하였다. 가계경제상태평가지표를 이용하여 특정 가계의 경제구조를 분석한 연구로는 독신가구(김년희·채정숙, 2005)와 가계유형의 특성 분석(성영애 등, 2004)가 있다. 김년희와 채정숙(2005)은 독신가구의 재정상태를 분석하면서 재무비율지표를 활용하였는데 독신가구의 재무비율지표의 준거기준을 충족하는 비율은 단기유동성지표, 부채규모지표, 저축성지표에서 73.4%~86.8%를 나타낸 반면, 소비지출지표는 56.3%, 투자성향지표 35.7%, 그리고 주거비지출지표 3.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 가계재무상태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가계유형을 분석한 연구(성영애 등, 2004)의 결과에 따르면 안정성지표와 성장성지표를 모두 만족한 가계(0.7%), 안정성은 있으나 성장성은 부족한 가계(21.4%), 안정성은 부족하나 성장성은 있는 가계(0.3%), 안정성과 성장성이 모두 부족한 가계(77.5%)로 구분하였다. 사회·인구학적 요인(가구원수, 가구주직업, 가구주교육수준, 가구주연령계층, 거주형태, 거주 지역)이 각 가계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안정성과 성장성을 모두 갖춘 가계는 가구주직업과 거주형태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안정성은 있으나 성장성은 부족한 가계는 가구원수, 가구주

<표 1> 가계재무비율 유형 및 준거기준

재무비율유형	준거기준	재무비율유형	준거기준
Lytton, Garman & Porter(1991)		DeVaney(1993)	
월평균순소비지출/월평균가처분소득	1.0미만	연간주거비/총소득	0.28이하
연간총저축/연간가처분소득	세전소득10%	유동자산/가처분소득	0.25이상
월평균총주거지출/월평균가처분소득	0.30~0.40	연간부채지불액/가처분소득	0.40이하
유동자산/월평균순소비지출	2~6개월분	총자산/총부채	1.0이상
월평균소비자부채상환액/가처분소득	0.10이하	연간소비자부채지불액/가처분소득	0.15이하
총연간부채상환액/총연간소득	0.30~0.35	투자자산/순자산	0.25이상
총주거자산/총주거관련부채	-		
투자자산/순자산	0.20이상		
Griffith(1985)		양정선(1997)	
유동자산/월지출액	2~6개월 이상	연간총지출/연간총소득	1.0미만
(유동자산+기타금융자산)/월지출액	6.0이상	주관적최저생계비/월평균가계소득	1.0미만
유동자산/총부채	0.1이상	주관적최저생계비/월지출	1.0미만
(유동자산+기타금융자산)/총부채	0.2~0.3이상	금융자산/월지출액	3.0이상
유동자산/비담보부채	1.0이상	금융자산/순자산	0.25이상
유동자산/순자산	-	금융자산/총부채	0.1이상
유동자산/순자산	-	실물자산/총부채	1.0이상
유동자산/연간부채 부담액	0.5이상	총자산/총부채	1.0이상
(유동자산+기타금융자산)/연간부채부담액	1.0	총부채/순자산	1.0이상
총부채/순자산	1.0	총부채/연간총소득	-
비담보부부채/순자산	0.4(최대)		
(자산의순가치+순유형자산)/ 순자산	1.0		
(자산의 순가치+순유형자산-주택의가치)/순자산	0.2		
(자산의순가치+순유형자산) / 고정된 현금자산	2.0(최소)		
순유형자산/순자산	-		
소득창출자산/순자산	-		
최윤지, 최현자(1998)		허경옥, 한수진(2005)	
월평균소비지출/월평균가처분소득	1.0미만	월평균소비지출액/월평균가계소득	0.9미만
연간총저축액/연간처분소득	0.1초과	총저축액/총소득	0.1이상
유동자산/월지출액	3.0초과	금융자산/월평균가계소득	1.0이상
유동자산/연간가처분소득	0.25초과	금융자산/총자산	0.1이상
유동자산/순자산	0.25초과	금융자산/총부채	0.1이상
유동자산/총부채	0.1초과	월평균부채상환액/월평균가계소득	0.25이하
총부채/순자산	1.0미만	투자자산/순자산	0.2이상
실물자산/총부채	1.0초과		
안승철, 김년희(2001)		최현자, 이희숙, 양세정, 성영애(2003)	
투자자산/순자산	0.2초과	월평균소비지출/월평균가계소득	0.9미만
월평균총주거지출/월평균가처분소득	0.30~0.40	월평균보험료/월평균가계소득	0~0.2
연간총저축액/연간가처분소득	0.1이상	연간총저축액/연간가처분소득	0.1이상
유동자산/가처분소득	0.25이상	금융자산/월평균생활비	1.0이상
유동자산/월평균순소비지출	2~6개월	금융자산/월평균가계소득	1.0이상
유동자산/순자산	0.25이상	금융자산/총자산	0.1이상
유동자산/총부채	0.1이상	월평균부채상환액/월평균가계소득	0.25이하
총부채/순자산	1.0미만	총부채/금융자산	10이하
실물자산/총부채	1.0이상	총부채/총자산	0.8이하
투자자산/순자산	0.2이상	투자자산/총자산	0.05~0.1
		실물자산/총자산	0.9이하

직업, 가구주교육수준, 가구주연령계층, 거주지역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안정성은 부족하나 성장성은 있는 가계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라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고, 안정성과 성장성이 모두 부족한 가계는 가구원수, 가구주직업, 가구주교육수준, 가구주연령계층, 거주지역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문제의 설정과 연구방법

1. 연구의 틀

본 연구의 대상인 저소득층에 대한 정의는 OECD가 규정한 상대빈곤층의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의 50%미만으로 하였다. 경제 규모상 세계 10위권대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한국의 저소득층은 절대빈곤개념을 기초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연구의 목적상 저소득층의 다양한 가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를 기초로 한 절대빈곤층보다는 포괄적인 상대빈곤층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OECD가 규정한 상대빈곤층 기준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재무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들 가운데 소득, 소비 및 자산상태를 나타내는 단순지표들과 재무비율지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가계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단순지표로 소득의 규모, 원천, 소비지출 항목의 변천 및 저축의 유무, 자산보유의 유무 및 종류 등이 포함된다. 둘째, 가계재무상태를 평가하는 재무비율지표 가운데 본 연구의 대상인 저소득층의 경제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를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재무상태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와 성장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개발한 최현자 등(2003)의 가계경제상태평가 지표를 활용하였다.

안정성지표는 6가지로 구성하였는데 가계수지, 주거안정, 비상자금, 위험대비, 부채상환부담, 부채규모로 이루어져있다. 주거안정 지표의 경우 최현자 등(2003)의 연구에서 개발된 지표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선행연구(김년희·채정숙, 2005; 성지미·이윤정, 2004)의 연구 등에서 조사되어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난 바, 본 연구에서는 채택하였다. 그런데 주거안정 지표의 준거기준은 Lytton 등(1991)의 경우 0.3-0.4로 제시한 반면 DeVaney(1993)의 경우 0.28이하로 제시하고 있으며 안승철과 김년희(2001)의 경우 0.3-0.4를 채택하고 있다. Lytton 등(1991)은 총주거비지출로 월세, 주택담보금 상환, 세금, 사용료, 유지비, 수리비, 주택보험료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연구자료(KLIPS)의 주거비지출보다 매우 광범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거지출 지표에 대한 준거기준은 DeVaney(1993)의 경우를 채택하였다. 또 성장성

지표는 총 4가지로 저축성향, 유동성, 증권투자성향, 실물투자성향으로 구성하였다. 안정성지표가 성장성지표보다 2가지 더 많은 재무비율로 측정을 한 이유는 저소득층에게 있어 성장성보다 안정성 확보가 더 긴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채택된 재무상태평가를 위한 재무비율지표는 <표 3>과 같다.

가계형태를 유형화하는 기준은 성영애 등(2004)의 연구를 토대로 안정성 지표와 성장성 지표의 충족 여부로 판단하였다. 성영애 등의 연구에서는 안정성 및 성장성 지표의 충족과 미충족 여부만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안정성지표 및 성장성 지표 내에 여러 가지의 지표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모든 지표를 충족하는 경우가 매우 적어(1% 미만) 유형별 분포가 미충족되는 경우에 편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정성과 성장성 지표의 준거기준의 충족-부분충족-미충족의 세 가지 수준으로 유형을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가구형태별로 저소득층가계의 재무구조는 어떠한가? 안정성과 성장성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연구문제 2> 재무비율지표의 충족 정도를 근거로 할 때 가구형태별로 저소득층가계는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는가?

<연구문제 3> 연구문제 2에서 추출된 저소득층가계 유형별로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재무적 특성은 어떠한가?

2.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이 2008년에 조사 실시한 10차년도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 이하 KLIPS)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KLIPS 조사는 매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거주하는 5,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KLIPS 조사는 '가구용 조사'와 '가구원 조사'로 이루어지며 가구용 조사는 가구주 또는 배우자가 응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는 가구용 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응답자에 해당하는 가구원 조사 내용을 합하여 분석자료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저소득층 기준을 OECD가 규정한 상대빈곤개념을 채택하여 연간중위소득의 50%를 저소득층의 범위를 규정하는 기준으로 채택하였다. 2008년도 연간소득의 중위소득수준은 2,704만원(김용기 등, 2010)이며 OECD 상대적 빈곤의 기준을 적용하여 이의 50% 이하인 1,622만4천원을 저소득층 소득수준의 기준으로 하였다. 이를 월평균소득으로 환산할 경우 1,352,000원이며 이 수준은 2008년도 보건복지부 고시 4인 가족기준 월평균최저생계비 1,105,480원보다 22% 더 높은 수준이다. KLIPS 전체 가구

대상자 5,000가구 가운데 연간 총소득이 1,622만4천원 이하를 충족하는 최종 분석대상은 1,470가구였는데 이 가운데 소득과 자산 등에 있어 무응답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를 제외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조사의 분석대상이 된 사례는 1,443가구이며, 사례의 응답은 모두 가구주의 응답이다.

3. 변수의 정의와 척도

경상소득에 대한 분석은 소득원천에 따른 분류에 따라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구조를 통해 이루어진다. 본 연구대상인 저소득층가계의 경우 이전소득이 전체 경상소득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소득이란 공적 또는 사적으로 노동이나 자본의 대가 없이 들어오는 소득을 말한다. 가구소비실태조사의 항목에서는 이전소득에 각종 연금소득(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이 포함되어 있다. 저소득층의 지출을 통한 경제적 복지 실현은 전체 소비지출 금액의 규모뿐만 아니라 어떤 비목에서 효용창출을 위한 직접적인 지출이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분명해진다. 특별히 저소득층의 경우 소비지출비목 가운데 주거비지출규모, 교육비지출규모 등이 중요하다. 자산은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으로 구분되는데 실물자산은 금, 은, 부동산 등이 포함되며,

금융자산은 가계가 금융기관을 통해 축적한 예·적금, 저축성보험, 유가증권, 계 등이 포함된다. 부채는 여러 가지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대출제공기관을 기준으로 분류한 KPLIS(노동패널자료)의 분류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부채, 사금융 부채(보유부동산 전세보증금, 사채, 계 탄 돈 등)로 구성한다.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의 자산 및 부채보유와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므로 자산의 종류 중 주택자산 및 부채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 재무관련 변수 그리고 기타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저소득층 재무상태 분석을 위한 단순지표로서 연간가계가처분소득, 월평균가처분소득, 월평균생활비, 월평균저축성보험료, 월평균부채상환액, 연간총저축액, 금융자산, 투자자산, 실물자산, 총자산, 총부채가 포함되며 이들 변수의 정의는 다음 <표 2>와 같다. 재무상태평가를 위한 재무비율을 선정하기 위해서 앞에 제시한 선행연구를 참조하고 최현자 등(2003)의 연구를 기초로 하였으며 연구대상이 저소득층임을 감안하여 보완하였다. 또 KLIPS는 조사 당시 소득을 질문할 때 세금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을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월평균가계소득은 가처분소득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변수의 정의 및 척도는 <표 2>와 <표 3>과 같다.

<표 2> 변수의 정의 및 척도

변수명	변수의 정의 및 척도
연간가계가처분소득	지난 1년간 세금을 제외한 연평균소득(노동패널자료는 조사당시 세금을 제외한 소득을 질문하였음) 근로소득 + 금융소득+부동산소득+사회보험소득+이전소득+기타소득
월평균가계가처분소득	지난 1년간 가계가처분소득금액(연간가계가처분소득)을 12개월로 나눈 월평균금액
월평균저축액	지난 1년간 총저축액을 12개월로 나눈 월평균금액
월평균생활비	지난 1년간 총소비지출액을 12개월로 나눈 월평균금액
월평균교육비	지난 1년간 공교육비(학교등록금, 납입금 등)와 사교육비(학원, 과외비 등)에 지출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월평균금액
월평균주거비	지난 1년간 주거비(월세, 전기수도가스 요금 등의 주택관리비)에 지출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월평균금액
월평균보장성보험료	지난 1년간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 민영 보장성보험료, 민영 종신보험료, 자동차보험료 등 사회보험 및 민영 보장성보험료로 지출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월평균금액
월평균저축성보험료	지난 1년간 보장성보험료를 제외한 모든 민영저축성보험과 개인연금보험 불입액(저축성보험료+개인연금보험료)을 12개월로 나눈 월평균금액
월평균부채상환액	지난 1년간 부채상환을 위해 불입하는 액수를 12개월로 나눈 월평균금액 (금융기관부채상환액+사금융 부채상환액+기타부채상환액)
금융자산	금융권 및 사금융, 기타 등에 저축되어 있는 총저축보유액(은행예금+증권투자+저축성보험+계+기타자산)
투자자산	보유주식, 국공채, 채권 등의 시가총액
실물자산	보유부동산의 시가총액
총자산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총액
총부채	금융권 및 사금융 부채보유액, 전세금/보증금 받은 금액의 총합

<표 3> 저소득층가계의 재무상태평가를 위한 재무비율 지표

평가지표	개념	재무비율	선정원칙
가계수지 지표	가계소득에 대한 생활비의 비율로 소비성향과 적자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월평균생활비/ 월평균가계가처분소득	낮을수록 바람직함(0.9이하)
주거안정 지표	가계소득에 대한 주거비의 비율로 주거안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월평균주거비/ 월평균가계가처분소득	낮을수록 바람직함(0.28이하)
안정성 지표	비상자금 지표 실업 등의 사건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소득이 중단될 경우 유동성이 큰 금융자산으로 현재 생활수준을 몇 개월 정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금융자산/ 월평균생활비	높을수록 바람직함(3이상)
위험대비 지표	장기적인 위험에 대한 대비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가계 소득에 대비하여 보험료를 어느 정도 지출하는가를 측정하여 위험대비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	월평균보장정보험료/ 월평균가계가처분소득	높을수록 위험대비는 잘 되어있으나 지나치게 높을 경우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음 (0초과~0.2미만)
부채상환 부담지표	매월 지출해야 하는 부채상환액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유량적인 측면에서 부채부담을 평가하는 지표	월평균부채상환액/월평균가계가처분소득	낮을수록 바람직함(0.25이하)
부채규모 지표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을 가지고 부채를 청산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부채청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총부채/총자산	낮을수록 바람직함(0.8이하)
저축 성향	가계소득에서 어느 정도 저축하는지를 측정함으로써 가계의 미래 성장가능성을 평가	연간총저축/ 연간총가계가처분소득	높을수록 바람직함 (0.1이상)
성장성 지표	유동성 총자산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하여 가계의 유동성을 알려주는 지표	금융자산/총자산	높을수록 바람직(0.1이상)
증권투자 성향	자산을 운영하면서 위험은 있지만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투자자산/총자산	높을수록 수익성은 높아지나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증가(0.05~0.1)
실물투자 성향	총자산에서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가계의 실물자산에 투자성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실물자산/총자산	저소득층의 경우 지나치게 낮아도 문제(0.5~0.9이하)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SPSS Window(V.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저소득층의 가계재무상태의 단순지표 및 재무비율의 평균과 총족률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추출된 저소득층가계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재무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분할표분석(Crosstabs), 일변량 분산분석(F-test)를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및 재무적 특성

조사대상 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일인가구의 경우 조사대상가구의 가구주 성별이 남자인 경우는 165명(36.6%)이고 여성인 경우는 286명(63.4%)으로 여성가구주가 두 배 가까이 많다. 반면 비일인가구의 경우는 반대로 남성가구주가 646명(80.4%), 여성가구주가 157(19.6%)

로 남성가구주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연령을 살펴보면 일인가구의 가구주 연령은 70대 이상이 162명(33.0%)로 가장 많았으며 60대가 66명(17.6%), 20대가 67명(14.8%), 50대가 62(13.7%), 30대가 60명(13.3%), 40대는 34명(7.5%) 순으로 나타났다. 비일인가구의 경우 가구주 연령은 70대가 266명(30.3%), 60대가 176명(24.7%), 50대가 137명(17.1%), 40대가 120명(14.9%), 30대가 71명(8.8%), 20대가 33명(4.1%)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주 취업 여부는 일인가구의 경우 취업자가 238명(42.8%)인 반면 비일인가구의 취업자는 444명(55.2%)으로 약간 높았다. 가구주의 학력수준을 살펴보면, 일인가구의 경우 무학이 21.5%, 초등학교 졸업이 25.5%, 중학교 졸업이 12.4%, 고등학교 졸업이 20.4%, 전문대졸 이상이 20.2%로 나타났다. 비일인가구의 경우 가구주 학력수준은 무학이 8.8%, 초등학교 졸업이 24.8%, 중학교 졸업이 19.7%, 고등학교 졸업이 30.3%, 전문대졸 이상이 16.5%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거주 지역을 살펴보면, 일인가구의 경우 거주지역이 서울과 경기지역인 경우는 198명(35.6%), 광역시인 경우는 141명(27.2%), 기타지역이 207명(37.2%)이었으며 비일인가구의 경우 거주지역이 서울과 경기지역인 경우는 356명(40.3%), 광역

<표 4>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 수	항 목	1인 가구		非1인 가구		변 수	항 목	1인 가구		非1인 가구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 별	남	165	36.6	646	80.4	학 력	무 학	97	21.5	71	8.8	
	여	286	63.4	157	19.6		초등학교	115	25.5	199	24.8	
	합계	451	100.0	803	100.0		중학교	56	12.4	158	19.7	
연 령	20대	67	14.9	33	4.1		고등학교	92	20.4	243	30.3	
	30대	60	13.3	71	8.8		전문대졸 이상	91	20.2	132	16.5	
	40대	34	7.5	120	14.9		합 계	451	100.0	803	100.0	
	50대	62	13.7	137	17.1		거주지역	서울/경기	198	35.6	356	40.3
	60대	66	17.6	176	24.7			광역시	141	27.2	253	28.6
	70대 이상	162	33.0	266	30.3			기 타	207	37.2	275	31.1
합 계	451	100.0	803	100.0	합 계			556	100.0	884	100.0	
취업여부	취업	238	42.8	444	50.2							
	비취업	318	57.2	440	49.8							
	합 계	556	100.0	884	100.0							

*각 변수의 합계가 다른 것은 결측치 때문임

사인 경우는 253명(28.6%), 기타지역이 275명(31.1%)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일인가구는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에, 非일인가구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지역에 더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

<표 5>에 제시한 조사대상가구의 재무특성을 살펴보면, 조사대상 가구 가운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일인가구의 경우 44.2%인데 반해 非일인가구의 경우는 64.7%로 훨씬 더 많았다.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는 일인가구는 6.2%, 非일인가구도 6.2%로 유사하였으며,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는 일인가구는 6.0%인데 비해 非일인가구는 9.2%로 다소 많았다. 사회보험수혜자가 있는 경우는 일인가구는 15.5%에 비해 非일인가구는 21.6%로 다소 많았다. 이전소득이 있는 경우는 일인가구는 무려 70.1%였으며 非일인가구도 69.7%로 나타나 저소득층가계의 소득은 가구형태와 상관없이 이전소득에 매우 의존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외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는 매우 적었다. 조사대상가구의 저축유무를 살펴보면 조사 당시 저축을 하고 있는 일인가구의 비중은 27.7%인데 비해 저축을 하고 있는 非일인가구의 비중은 36.2%로 훨씬 상회하였다. 저축의 유형을 살펴보면 일인가구나 非일인가구 모두 주로 적립식펀드, 예/적금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적립식펀드의 보유율이 일인가구가 17.1%, 非일인가구가 28.2%로 나타났다. 조사대상가구가 저소득층임을 감안하면 이 수치는 의외로 높은 보유율로 보이는데 이 당시 사회적으로 펀드열풍이 나타났던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사대상가구의 자산 유무를 살펴보면, 일인가구의 경우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40.6%로 非일인가구의 56.3% 보다 현격히 낮다. 또 거주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일인가구가 9.2%, 非일인가구가 21.0%로 더 간격은 벌어진다.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일인가구나 非일인가구의 비중은 각각 47.5%, 45.7%로 유사하지만 과반수를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다. 그 외 주식/채권/신탁이나 저축성보험의 잔액 보유유무는 1~2%대로 미비하다. 자동차소유 여부를 살펴보면 일인가구는 11.2%만이 소유하는데 비해 非일인가구는 30.3%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조사대상가구의 부채유무를 살펴보면 부채가 있는 일인가구의 비중은 21.0%인데 비해 非일인가구의 비중은 42.7%로 非일인가구의 부채비중이 두 배 이상 높았다. 이는 거주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의 보유 비중이 非일인가구가 일인가구보다 훨씬 높은 결과와 관련 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보유하면 할수록 부채의 규모도 증가하는 경향(이성립, 2005)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부채를 얻은 곳으로 일인가구나 非일인가구 모두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사채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더 많았다. 특히 非일인가구의 경우 금융기관부채를 보유하는 경우가 32.8%로 일인가구의 15.1%보다 많았는데 이 또한 부동산보유로 인한 주택담보대출이 더 많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표 6>에 제시한 바, 조사대상가계의 연간평균소득 수준은 일인가구의 경우 676.2만원이고 非일인가구의 경우 937.7만원이었으며 월평균가계처분소득은 일인가구의 경우 56.3만원, 非일인가구는 78.1만원으로 나타났다. 소득원천별로 살펴보면

<표 5> 저소득층가계의 가구형태별 재무 특성

변 수	일인가구(n=556)		비일인가구(n=887)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소 득	근로소득자 유무	243(44.2)	307(55.8)	571(64.7)	312(35.3)	
	금융소득 유무	34(6.2)	516(93.8)	55(6.2)	828(93.8)	
	부동산소득 유무	33(6.0)	517(94.0)	82(9.2)	801(90.7)	
	사회보험수혜자 유무	85(15.5)	465(84.5)	191(21.6)	692(78.4)	
	이전소득 유무	390(70.1)	166(29.9)	618(69.7)	269(30.3)	
	생활보호대상 여부	61(11.1)	489(88.9)	77(8.7)	806(91.3)	
	기타소득 유무	23(4.1)	533(95.9)	38(4.3)	849(85.7)	
	저 축	저축 여부	149(27.7)	389(72.3)	317(36.2)	558(63.8)
예/적금 유무		64(11.4)	85(15.3)	82(9.2)	235(26.5)	
개인연금 유무		6(1.1)	143(25.6)	17(1.9)	300(33.8)	
민영보장성보험 유무		3(0.5)	146(26.3)	15(1.7)	302(34.0)	
민영중신보험 유무		6(1.1)	143(25.6)	10(1.1)	307(34.6)	
적립식편드 유무		95(17.1)	54(9.7)	250(28.2)	67(7.6)	
저축성보험 유무		14(2.8)	135(24.3)	43(4.8)	274(30.9)	
갯돈 불입금 유무		4(0.7)	145(26.1)	7(0.8)	310(34.9)	
자 산		거주주택 보유	226(40.6)	330(59.4)	499(56.3)	388(43.7)
		기타 부동산 보유	51(9.2)	505(90.8)	86(21.0)	701(79.0)
	금융자산(예/적금) 보유	264(47.5)	292(52.8)	405(45.7)	482(54.3)	
	주식/채권/신탁 보유	11(2.0)	545(98.0)	9(1.0)	878(99.0)	
	저축성 보험 보유	6(1.1)	550(98.9)	20(2.3)	867(97.7)	
	자동차 보유	62(11.2)	494(88.2)	269(30.3)	618(69.7)	
부 채	부채 유무	117(21.0)	439(79.0)	379(42.7)	308(57.8)	
	금융기관 부채 유무	84(15.1)	472(84.9)	291(32.8)	596(67.2)	
	사채 유무	27(4.9)	529(95.1)	90(10.1)	797(89.9)	

연간근로소득은 일인가구의 경우 348.0만원으로 비일인가구의 586.1만원에 59.4% 수준이다. 또 연간부동산소득은 일인가구의 경우 19.1만원인데 비해 비일인가구의 경우 44.6%의 42.8%에 불과하다. 하지만 연간이전소득과 연간기타소득에서 일인가구는 비일인가구보다 많은 소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생활비 수준은 일인가구의 경우 51.4만원, 비일인가구의 경우 95.3만원으로 일인가구의 월평균생활비수준은 비일인가구의 생활비의 53.9% 정도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생활비목을 보면, 일인가구의 월평균식비 수준은 비일인가구의 62.1%수준이었고 일인가구의 월평균교육비는 비일인가구의 4.3% 수준이었고, 일인가구의 월평균주거비는 비일인가구의 74.6%수준이었으며, 일인가구의 월평균사회보험료는 비일인가구의 45.2%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일인가구의

경우 주거비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월평균저축액의 수준은 일인가구의 경우 7.4만원인 반면 비일인가구의 경우 8.1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총자산의 규모는 일인가구의 경우 1189.5만원인데 비해 비일인가구의 경우는 3211.0만원으로 일인가구의 총자산규모는 비일인가구에 비해 37.0%에 불과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인가구의 금융자산규모는 비일인가구의 68.1%인데 비해 일인가구의 실물자산규모는 비일인가구의 25.4%에 불과해 부동산자산에서 큰 차이가 나타났다. 총부채의 규모는 일인가구의 경우 552.5만원이고 비일인가구는 2202.6만원으로 일인가구의 총부채규모는 비일인가구의 25.1%로 나타났다. 따라서 순자산의 수준은 일인가구는 637.0만원에 비해 비일인가구는 1008.4만원으로 훨씬 더 많아 1.5배 이상이다.

<표 6> 저소득층가계의 가구형태별 재무 특성

(단위 : 만원)

변 수	A 일인가구 (n=556)	B 非일인가구 (n=887)	A/B (%)	변 수	A 일인가구 (n=556)	B 非일인가구 (n=887)	A/B (%)
연간가계가처분소득	676.2	937.7	72.1	월평균생활비	51.4	95.3	53.9
-연간근로소득	348.0	586.1	59.4	-월평균식비	13.6	21.9	62.1
-연간금융소득	12.4	16.4	75.6	-월평균교육비	0.4	9.4	4.3
-연간부동산소득	19.1	44.6	42.8	-월평균주거비	10.3	13.8	74.6
-연간사회보험소득	36.8	58.9	62.5	-월평균사회보험료	1.9	4.2	45.2
-연간이전소득	246.7	221.0	111.6				
-연간기타소득	13.2	10.6	124.5	월평균저축액	7.4	8.1	91.3
월평균가계가처분소득	56.3	78.1	72.1				
총자산	1,189.5	3,211.0	37.0	총부채	552.5	2,202.6	25.1
-금융자산	545.6	800.7	68.1	-월부채상환금	0.2	10.2	1.9
-실물자산	603.1	2,375.4	25.4	순자산	637.0	1,008.4	63.2

<표 7> 저소득층가계의 재무상태 평가지표 분석

재무상태 평가지표	재무비율	준거기준	충족률(%)		
			일인가구	非일인가구	
안정성지표	가계수지	월평균생활비/월평균가계가처분소득	0.9 이하	46.6	32.2
	주거안정	월평균주거비/월평균가계가처분소득	0.28 이하	73.0	76.0
	비상자금	금융자산/월평균생활비	3 이상	46.9	41.6
	위험대비	월평균보장성보험료/월평균가계가처분소득	0초과 ~0.2 미만	33.0	51.0
	부채상환부담	월평균부채상환액/월평균가계가처분소득	0.25 이하	88.5	85.8
	부채규모	총부채/총자산	0.8 이하	44.8	41.5
성장성 지표	저축성향	연간총저축액/연간가계가처분소득	0.1 이상	19.8	22.9
	유동성	금융자산/총자산	0.1 이상	46.6	41.4
	증권투자성향	투자자산/총자산	0.05~0.1	0.0	0.2
	실물투자성향	실물자산/총자산	0.9 이하	46.6	41.6

2. 저소득층의 가계재무상태 분석 - 안정성과 성장성 면에서

가계재무상태 평가지표인 재무비율을 이용하여 저소득층 가계의 재무상태를 평가한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안정성 지표에 해당되는 가계수지지표, 비상자금지표, 주거안정지표, 위험대비지표, 부채부담지표, 부채규모지표와 성장성지표에 해당되는 저축성향지표, 유동성지표, 증권투자성향, 실물투자성향으로 구분하여 준거기준에 대한 충족률을 분석하였다. 안정성 면에서 볼 때, 가계수지지표의 준거기준 충족률은 일인가구의 경우 46.6%, 非일인가구의 경우 32.2%로 충족률이

전반적으로 저조할 뿐만 아니라 非일인가구의 경우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非일인가구의 68%에 가까운 가구가 소득수준이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힘든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저소득층의 非일인가구의 생계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주거안정지표의 준거기준 충족률은 일인가구의 경우 73.0%, 非일인가구의 경우 76.0%로 비교적 높았다. 이는 월평균주거비의 척도가 월세와 주거관리비 등 유지관리비만을 포함하는 것과 관련된다. 월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내 부동산임대시장을 감안하면 이 주거비의 척도는 실제로 전세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거주주택인 경우의 주거비 부담이 제외된 수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세나

보유주택담보로 인한 주거부담을 함께 고려할 경우 주거안정 지표의 충족률은 더 낮아질 수 있다.

비상자금대비지표의 준거기준 충족률은 일인가구의 경우 46.9%, 비일인가구의 41.6%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충족률이 50%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치이며 비일인가구의 비상자금대비 수준이 일인가구에 비해 조금 낮은 것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가구형태와는 상관없이 저소득층가계의 비상자금대비가 미흡하며 만약 사망, 질병, 실업 등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과반수가 넘는 가계가 이에 대한 대처가 곤란할 것임을 의미한다. 중산층 이상의 소득계층 가계와는 달리 규칙적인 소득 획득이 어려운 저소득층임을 감안할 때 예기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위험대비지표의 준거기준 충족률은 일인가구의 경우 33.0%, 비일인가구의 경우 51.0%로 특히 일인가구의 충족률이 매우 낮은 편이다. 위험대비지표가 월평균가계처분소득에서 월평균보장성보험료 지출의 비중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월평균보장성보험료가 없는 경우는 위험대비지표의 준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사회보험수혜대상 가구의 경우 사회보험가입을 위한 지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이나 노령연금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범위 내에서 질병이나 실업, 노령, 사망 등과 같은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를 할 수 있다. 이 충족률의 결과는 사회보험수혜대상 가구가 추가의 위험대비를 위한 지출을 하지 않을 경우 위험대비가 충분치 않은 것을 의미한다.

부채상환부담지표의 준거기준 충족률은 일인가구의 경우 88.5%, 비일인가구의 경우 85.8%로 나타나 재무상태 평가지표 가운데 가장 양호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 부채규모지표의 준거기준 충족률을 보면 비일인가구의 경우 44.8%, 비일인가구의 경우 41.5%로 자산대비 부채규모가 80%를 초과하는 가구(준거기준 미충족가구)가 가구형태와 상관없이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상환부담지표와 부채규모지표의 결과는 저소득층가계의 부채상태는 가구형태와는 상관없이 부채규모는 자산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크지만 이를 상환하는데 필요한 지출은 현재의 소득수준에서 감당할 수준임을 의미한다.

성장성지표는 저축성향지표, 유동성지표, 증권투자성향지표, 실물투자성향지표로 구성된다. 저축성향지표의 준거기준 충족률은 비일인가구의 경우 19.8%, 비일인가구의 경우 22.9%로 모두 매우 낮은 수준이며 특히 일인가구의 저축성향이 더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일인가구의 연령별 구성에서 20대와 30대의 비중이 비일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을 볼 때 상대적으로 젊은 일인저소득층의 저축성향이 저조하기 때문일 것을 추측된다.

유동성지표의 준거기준 충족률은 일인가구의 경우 46.6%, 비일인가구의 경우 41.4%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전반적으로 충족률이 낮은 편이다. 이러한 유동성지표의 충족률 결과는

과반수이상의 저소득층가계는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앞의 자산의 구성과 규모의 일반적 경향(<표 5>와 <표 6> 참조)을 보면 저소득층가계는 실물자산보다 금융자산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수이상의 저소득층가계가 자산상태에서 유동성이 부족한 상태라는 점은 저소득층가계의 유동성 증진 문제가 시급하다고 평가된다. 증권투자성향지표의 준거기준 충족률은 일인가구의 경우 0%, 비일인가구의 경우 0.2%로 거의 제로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자가 저소득층이기 때문으로 보이지만 저소득층의 자산구성에서 투자성 자산이 매우 적은 것을 나타낸다. 그런데 실물투자성향지표의 준거기준 충족률은 일인가구의 경우 46.6%, 비일인가구의 경우 41.6%로 실물투자의 경우 거주주택의 보유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저소득층 일인가구의 재무상태는 일인가구의 경우 증권투자성향뿐만 아니라 저축성향이 매우 낮으며 위험대비가 미흡한 가구도 많았다. 반면 저소득층 비일인가구의 재무상태는 증권투자성향뿐만 아니라 저축성향이 매우 낮으며 가계수지의 충족수준도 낮은 가구가 많았다. 그리고 가구형태와 상관없이 비상자금마련이나 부채규모의 수준, 유동성의 확보, 실물투자성향의 수준이 충족되는 가구는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한편 주거안정측면이나 부채상환부담에 준거기준에 충족된 가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를 독신가구의 재정 상태를 분석한 김년희·채정숙의 연구(2005)와 비교해 볼 때 준거기준의 차이에 따라 다소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안정성지표와 관련해서 가계수지지표의 경우 본 연구의 일인가구의 준거기준(<0.9> 충족률은 46%인데 비해 김년희·채정숙의 연구에서 독신가구의 월평균소비지출/월평균가처분소득 비율은 준거기준(<1.0) 충족률은 56.3%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의 일인가구의 주거안정지표(총월평균주거비지출/월평균가계처분소득)의 준거기준(<0.28)과 김년희·채정숙의 연구에서의 준거기준(0.30-0.40)이 상이하여 준거기준 충족률도 각각 73.0%와 3.5%로 매우 달랐다. 본 연구는 안정성지표로서 주거안정지표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DeVaney(1993)의 연구를 토대로 준거기준을 적용하였다. 안정성지표에서 부채규모지표를 비교해 보면, 본 연구에서는 일인가구의 부채규모지표(총부채/총자산)의 준거기준(<0.8) 충족률이 44.8%인데 비해 김년희·채정숙의 연구 결과에서 총부채/총자산의 준거기준(<1.0) 충족률은 84.9%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 일인가구의 저축성향지표의 준거기준 충족률은 19.8%인데 비해 김년희와 채정숙의 연구결과 독신가구의 연간총저축액/연간가처분소득의 준거기준 충족률은 72.1%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 이는 두 연구의 연구대상이 각각 저소득층 일인가구와 일반 독신가구로 소득계층에서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유동성지표에서

본 연구는 최현자 등(2003)의 모형을 기초로 한 바, 김년희와 채정숙의 유동성비율과는 다소 상이하지만 충족률측면에서 비교하면 본 연구 결과, 일인가구의 유동성지표(금융자산/총자산)의 준거기준(>0.1) 충족률은 46.6%인데 비해 김년희와 채정숙의 연구결과에서 유동자산/순자산의 준거기준(>.025) 충족률은 19.0%로 차이가 나타났다. 이처럼 상이한 결과는 유동성지표의 척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가계재무상태평가지표에 기초한 저소득층가계의 유형 분류

저소득층의 가계유형화는 재무상태평가지표인 안정성지표와 성장성지표의 충족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였다. 이미 연구의 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성영애 등(2004)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되 두 지표 각각의 충족정도를 '모두충족', '부분충족', '미충족' 3집단으로 분류하여 총 6가지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표 8-1>과 <표 8-2> 참조). 우선 안정성지표를 구성하는 6가지 지표의 준거기준 충족정도를 평가해 본 결과, 6가지 모두를 충족하지 못한 가계(미충족 가계)는 일인가구의 경우 13가계(2.3%), 非일인가구의 경우 28가계(3.2%)였다. 안정성을 평가하는 6가지 지표를 모두 충족한 가계는 일인가구의 경우 50가계(9.0%), 非일인가구의 경우 59(6.7%)에 불과하였다. 또 성장

성지표 4가지를 모두 충족하지 못한 가계는 일인가구의 경우 268가계(48.2%), 非일인가구의 경우 438가계(49.4%)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성장성지표를 모두 충족한 경우는 일인가구의 경우 없었으며 非일인가구의 경우는 1가계(0.1%)가 있었다. 그리고 안정성지표를 구성하는 6가지 지표를 부분적으로 충족하는 가계는 일인가구의 경우 493가계(88.7%), 非일인가구의 경우는 800가계(90.2%)이었으며 성장성지표를 구성하는 4가지 지표를 부분적으로 충족하는 가계는 일인가구의 경우 288(51.8%), 非일인가구의 경우 488가계(50.5%)였다.

각 지표의 충족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저소득층가계는 다음 <표 8-1>과 <표 8-2>와 같이 분포하였다. 교차분석 결과 안정성지표의 충족수준과 성장성지표의 충족수준은 유의수준 0.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빈도수가 다수인 셀을 중심으로 A~D유형으로 구분하여 보았다. 여기에서 안정성지표와 성장성지표를 모두 충족하는 한 개의 사례는 예외적인 사례로 판단되어 저소득층가계의 유형에서 제외하였다. 저소득층가계의 유형 A는 안정성은 전혀 충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장성이 모두 또는 부분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유형을 의미하며 불안정성이 특징인 최극빈형이라고 할 수 있다. B형은 안정성은 부분적으로 또는 모두 충족되고 있으나 성장성이 전혀 없는 저소득층가계 유형을

<표 8-1> 재무상태 평가지표에 기초한 저소득층 일인가구의 유형

안정성지표 충족수준 \ 성장성지표 충족수준	모두 미충족	부분 충족	모두 충족	합계
모두 미충족	11(2.0)A	2(0.4)A	0	13(2.3)
부분 충족	256(46.0)B	237(42.6)C	0	493(88.7)
모두 충족	1(0.2)D	49(8.8)D	0	50(9.0)
합 계	268(48.2)	288(51.8)	0	556(100.0)

카이제곱= 52.39***, 우도비= 66.38***

*** p<.001

<표 8-2> 재무비율에 기초한 저소득층 非일인가구의 유형

안정성지표 충족수준 \ 성장성지표 충족수준	모두 미충족	부분충족	모두충족	합계
모두 미충족	20(2.3)A	8(0.9)A	0	28(3.2)
부분 충족	417(47.0)B	382(43.1)C	1(0.1)	800(90.2)
모두 충족	1(0.1)D	58(6.5)D	0	59(6.7)
합 계	438(49.4)	488(50.5)	1(0.1)	887(100.0)

카이제곱= 61.81***, 우도비= 78.59***

*** p<.001

의미하며 가계재무구조상 성장부족형이라고 할 수 있다. C형은 안정성과 성장성 모두 부분적으로만 충족되어 있는 저소득층가계의 유형을 의미하여 재무구조상 복합적인 저소득층(복합형)을 나타낸다. D형은 안정성이 모두 충족되고 있으며 성장성도 부분적으로 충족되어 있는 저소득층가계의 유형을 의미하며 저소득층 가운데 다소 희망적인 저소득층(희망형)으로 볼 수 있다.

일인가구의 경우 저소득층가계유형은 A형이 13가계(2.4%), B형이 256가계(46.0%), C형은 237가계(42.6%), D형은 50가계(9.0%)로 분포되었다. 비일인가구의 경우 저소득층가계유형은 A형이 28가계(3.2%), B형이 417가계(47.0%), C형은 382가계(43.1%), D형은 59가계(6.6%)로 분포되었다. 최극빈형을 의미하는 A형은 일인가구나 비일인가구 모두 매우 낮은 비중을 나타냈다. 성장부족형을 의미하는 B형은 일인가구와 비일인가구 각각 46.0%, 47.0%로 비슷한 비중을 나타냈다. 복합적인 재무상태를 보이는 C형은 일인가구와 비일인가구 각각 42.6%, 43.1%로 비슷한 비중을 나타냈다. 희망형을 의미하는 D형은 일인가구와 비일인가구 각각 9.0%와 6.6%로 일인가구에서 희망적인 저소득층가계가 약간 더 많이 분포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가계재무상태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가계유형을 분석한 성영애 등(2004)의 연구는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결과와 단순비교 할 수 없다. 하지만 성영애 등(2004)의 연구에서 안정성과 성장성을 모두 갖춘 가계의 경우 0.7%인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없었다. 또 성영애 등(2004)의 연구에서는 안정성은 부족하나 성장성은 있는 가계의 경우 0.3%에 해당하는데 본 연구에서 일인가구의 경우 해당하는 가계가 없었고 비일인가구의 경우는 0.1%이다. 그리고 성영애 등(2004)의 연구에서는 안정성은 있으나 성장성이 부족한 가계의 경우는 본 연구에서 D형에 해당하는데 21.4%인데 반해 본 연구의 D형은 일인가구의 경우 9.0%, 비일인가구의 경우 6.6%에 불과하였다. 성영애 등(2004)의 연구에서 안정성과 성장성이 모두 부족한 가계는 77.5%나 되었는데 본 연구의 A, B, C형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일인가구의 경우 91.0%, 비일인가구의 경우 93.3%나 되었다.

IV. 저소득층의 가계유형별 사회·인구학적 및 재무적 특성 분석

일인가구 및 비일인가구 각각에서 저소득층가계 유형별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로 가구주연령, 가구주성별, 가구주취업여부, 주거형태, 거주지역 등을 채택하여 분할표분석(Crosstabs)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A형(최극빈형)의 경우 일인가구는 13가

구, 비일인가구는 28가구로 매우 적은 사례수이므로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재무특성 변수에 따른 차이를 분석할 경우 각 셀의 수가 5이하로 매우 적은 경우가 나타나 그 통계분석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A형을 제외한 B형(성장부족형), C(복합형), D(희망형)에 대한 분할표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일인가구와 비일인가구는 거주 지역을 제외한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9>에 나타난 바대로 B형(성장부족형)의 일인가구는 비일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령면에서 20대, 70대의 분포가 더 많았으며 성별면에서 여성가구주의 비중이 더 많았고 가구주 취업면에서 비취업자 비중이 약간 더 높았으며 주거형태면에서 전/월세 비중이 조금 더 높았다. C형(복합형)의 일인가구는 비일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령면에서 20대, 30대, 70대의 비중이 높았으며 성별면에서 여성가구주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았고 주거형태면에서 전/월세 비중이 다소 높았으며, 거주지역면에서 기타(중소도시 및 농촌)의 비중이 높았다. D형(희망형)의 일인가구는 비일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령면에서 20,30,40대의 비중이 높았으며 성별면에서 여성가구주의 비중이 매우 더 높았으며 주거형태에서 전/월세비중이 훨씬 더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저소득층 일인가구의 가계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정리해보면, B형(성장부족형) 일인가구는 70대, 여성가구주, 미취업자 경향이 높았고, C형(복합형) 일인가구는 20대와 70대, 여성가구주, 기타지역(농촌 등) 거주 경향이 높았으며, D형(희망형)일인가구는 20대와 30대, 여성가구주, 취업자, 전/월세 거주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저소득층 비일인가구의 가계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정리하면, B형(성장부족형) 비일인가구는 60대와 70대, 남성가구주, 미취업자, 서울/경기 거주 경향이 높았으며, C형(복합형) 비일인가구는 60대와 70대, 남성가구주, 자가 주거 경향이 높았고, D형(희망형) 비일인가구는 50대와 60대, 취업, 자가, 기타지역(농촌 등) 거주 경향이 높았다.

다음으로 저소득층가계유형별 재무상태 평가지표를 비교하기 위해 일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표 10>에 제시한 바, 가구형태에 따라 월평균가계가처분소득, 월평균생활비, 월평균식비, 월평균저축액, 총자산, 총부채, 실물투자성향지표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가계유형에 따라 월평균가계가처분소득, 월평균생활비, 월평균식비, 월평균저축액, 총부채, 순자산, 가계수지지표, 비상자금지표, 주거안정지표, 위험대비지표, 부채규모지표, 저축성향지표, 유동성지표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A형(최극빈형) 일인가구의 경우 월평균가계가처분소득수준이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가계유형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준인데 비해 월평균생활비는 다른 가계유형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격차는 가계수지지표

<표 9> 저소득층가계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교

(빈도, %)

독립변수	가계유형 가구형태	B(성장부족형)		C(복합형)		D(희망형)	
		일인가구	비일인가구	일인가구	비일인가구	일인가구	비일인가구
가구주 연령	20대	20(7.8)	9(2.2)	36(15.2)	22(5.7)	11(22.0)	0
	30대	19(7.4)	32(7.7)	31(13.1)	40(10.4)	10(20.0)	7(11.9)
	40대	19(7.4)	68(16.4)	12(5.1)	64(16.7)	6(12.0)	5(8.5)
	50대	33(12.9)	74(17.9)	29(12.2)	54(14.1)	7(14.0)	13(22.0)
	60대	53(20.7)	103(24.9)	46(19.4)	96(25.1)	9(18.0)	21(35.6)
	70대	112(43.8)	128(30.9)	83(35.0)	107(27.9)	7(14.0)	13(22.0)
	합계	256(100.0)	414(100.0)	237(100.0)	383(100.0)	50(100.0)	59(100.0)
			$X^2=32.43^{***}$ 우도비=32.79 ^{***}		$X^2=35.87^{***}$ 우도비=37.59 ^{***}		$X^2= 19.41^{***}$ 우도비=23.72 ^{***}
가구주 성별	남	83(32.4)	320(77.3)	67(28.3)	302(78.9)	15(30.0)	43(72.9)
	녀	173(67.6)	94(22.7)	170(71.7)	81(21.1)	35(70.0)	16(27.1)
	합계	256(100.0)	414(100.0)	237(100.0)	383(100.0)	50(100.0)	59(100.0)
		$X^2=132.88^{***}$ 우도비=134.90 ^{***}		$X^2= 155.46^{***}$ 우도비=159.45 ^{***}		$X^2=19.99^{***}$ 우도비=20.61 ^{***}	
가구주 취업	취업	86(33.6)	182(44.0)	110(46.4)	198(51.7)	36(72.0)	44(74.6)
	미취업	170(66.4)	232(56.0)	127(53.6)	185(48.3)	14(28.0)	15(25.4)
	합계	256(100.0)	414(100.0)	237(100.0)	383(100.0)	50(100.0)	59(100.0)
		$X^2=7.09^{**}$ 우도비=7.15 ^{**}		$X^2=1.64$ 우도비=1.64		$X^2=.09$ 우도비=.09	
주거형태	자가	103(40.2)	210(50.4)	104(43.9)	233(60.8)	17(34.0)	40(67.8)
	전/월세	153(59.8)	207(49.6)	133(56.1)	150(39.2)	33(66.0)	19(32.2)
	합계	256(100.0)	417(100.0)	237(100.0)	383(100.0)	50(100.0)	59(100.0)
		$X^2=6.54^{**}$ 우도비=6.57 ^{**}		$X^2=16.96^{***}$ 우도비=16.98 ^{***}		$X^2=12.39^{***}$ 우도비=12.62 ^{***}	
거주지역	서울/경기	91(35.5)	187(44.8)	86(36.3)	135(35.2)	16(32.0)	22(37.3)
	광역시	76(29.7)	108(25.9)	55(23.2)	122(31.9)	16(32.0)	13(22.0)
	기타	89(34.8)	122(29.3)	96(40.5)	126(32.9)	18(36.0)	24(40.7)
	합계	256(100.0)	417(100.0)	237(100.0)	383(100.0)	50(100.0)	59(100.0)
		$X^2= 5.69$ 우도비= 5.73		$X^2= 6.25^*$ 우도비=6.32 [*]		$X^2= 1.38$ 우도비=1.38	

*p<.05, ***p<.001

비율에 나타나 평균 6.31로 소득수준에 비해 생활비지출이 6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생계유지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주거안정지표는 1.27로 월평균가계가처분소득 수준 이상으로 주거비를 지출하고 있어 주거비지출문제가 심각한 것을 나타낸다. 또 비상자금지표에서 .00으로 거

의 비상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채규모지표는 9.03으로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보다 9배에 달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부채관리 문제가 매우 심각하였다. 그리고 성장성지표는 저축성향은 .16으로 저축하는 경향이 약간 나타나고 있는 반면 유동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저축의 결과가

<표 10> 저소득층가계유형별 재무상태 비교

(단위: 만원)

재무지표	가구형태	A(최극빈형) (n=41)	B(성장부족형) (n=673)	C(복합형) (n=620)	D(희망형) (n=109)	전체	F-test
월평균가계가 처분소득	일인가구	17.19	51.77	56.07	91.29	56.35	155.16***
	非일인가구	29.87	77.90	78.25	102.01	78.16	
	F-test			51.83***			
월평균생활비	일인가구	45.31	46.07	54.78	64.60	51.43	269.63***
	非일인가구	166.89	83.73	106.28	71.81	95.30	
	F-test			26.99***			
월평균식비	일인가구	11.08	13.03	13.82	16.30	13.62	226.28***
	非일인가구	28.46	21.17	23.08	17.22	21.96	
	F-test			4.66**			
월평균주거비	일인가구	8.00	9.83	10.76	11.48	10.33	47.22***
	非일인가구	19.57	14.06	13.51	11.36	13.82	
	F-test			1.91 n.s.			
월평균저축액	일인가구	3.69	.35	12.89	19.08	7.46	.75
	非일인가구	17.32	.93	13.89	17.29	8.13	
	F-test			58.88***			
총자산	일인가구	.00	597.09	1733.33	1954.60	1189.54	10.95***
	非일인가구	8350.00	2298.90	3874.32	2912.58	3210.99	
	F-test			2.46			
총부채	일인가구	1586.92	638.12	439.22	382.20	552.51	12.53***
	非일인가구	14937.50	2372.53	1419.82	39.83	2202.63	
	F-test			18.89***			
순자산	일인가구	-1586.92	-41.04	1294.11	1572.40	637.03	.937
	非일인가구	-6587.50	-73.64	2454.51	2872.75	1008.36	
	F-test			13.41***			
가계수지	일인가구	6.31	1.19	1.55	.72	1.37	3.67
	非일인가구	17.11	1.14	3.74	.71	2.57	
	F-test			15.09***			
주거안정	일인가구	1.27	.24	.35	.14	.29	.13
	非일인가구	1.90	.19	.43	.11	.33	
	F-test			19.08***			
비상자금	일인가구	.00	.39	45.39	8.7	19.74	.04
	非일인가구	1.08	.70	47.25	16.45	21.85	
	F-test			9.49***			
위험대비	일인가구	.21	.03	.06	.05	.05	3.45
	非일인가구	.65	.03	.22	.06	.13	
	F-test			5.85***			
부채상환부담	일인가구	.25	.00	.01	.00	.01	.68
	非일인가구	.52	.51	.03	.00	.26	
	F-test			.35			
부채규모	일인가구	.00	.07	2.89	.08	1.28	.57
	非일인가구	2.58	.26	3.83	.01	1.86	
	F-test			38.24**			
저축성향	일인가구	.16	.00	.04	.19	.04	1.00
	非일인가구	-5.90	-.18	-.06	.16	-.29	
	F-test			9.24***			
유동성	일인가구	.00	.00	.85	.86	.44	.04
	非일인가구	.04	.00	.72	.91	.37	
	F-test			122.35***			
증권투자성향	일인가구	.00	.00	.02	.01	.01	.65
	非일인가구	.00	.00	.00	.00	.00	
	F-test			1.78			
실물투자성향	일인가구	.00	.06	.05	.11	.06	8.70*
	非일인가구	.24	.19	.15	.09	.16	
	F-test			.35			

거의 부채상환을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B형(성장부족형) 일인가구의 경우 가계수지지표가 1.19로 적자가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안정지표는 .24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비상자금지표가 .39로 비상자금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수준이었다. 위험대비지표는 .03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부채규모나 부채상환부담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 성장성지표는 저축성향, 유동성, 증권투자성향이 거의 없었으며 실물투자성향이 아주 낮았다. 성장부족형 일인가구의 가계재무상태는 가계수지 적자, 저축 및 투자성향, 유동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데 가계소득이 어느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가계지출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적은 수준이더라도 가계소득의 일정부분을 저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C형(복합형) 일인가구의 경우 가계수지지표는 1.55로 적자가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주거안정지표는 .35로 나타나 약간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또 비상자금지표는 45.39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대부분 예/적금과 같은 금융자산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위험대비지표는 낮은 편이었고 평균적인 부채상환부담은 낮았다. 그런데 부채규모는 2.89로 총자산대비 총부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복합형 일인가구의 경우 일부 매우 높은 부채수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성장성지표의 결과는 저축성향은 .04로 낮은 반면 유동성은 .85로 매우 높은 편이며 증권투자성향과 실물투자성향은 매우 낮았다. 즉 복합형 일인가구의 가계재무상태는 가계수지 적자와 과도한 부채규모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가계의 지출상태를 평가하여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 있는 경우 부채규모를 우선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D형(희망형) 일인가구의 경우 가계수지지표는 .72이고 주거안정지표는 .14로 안정적인 수준으로 평가된다. 비상자금지표는 8.7로 준거기준 3을 넘는 가구가 대부분일 것으로 보이며 위험대비 수준은 .05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상환부담은 거의 0 수준이고 부채규모도 상당히 낮아 부채문제는 다소 적을 것으로 해석된다. 성장성지표의 결과는 저축성향이 .19로 긍정적인 반면 유동성은 .86으로 매우 높았고 증권투자성향이나 실물투자성향이 저소득층가계유형 가운데 높은 편으로 나타나 가계재무상태가 다소 양호한 편으로 평가되며 지나치게 높은 유동성 수준을 수익성있는 자산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A형(최극빈형) 비일인가구의 경우 가계수지지표는 17.11, 주거안정지표는 1.90으로 기본적인 생계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들의 생계보조형 사회보장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자금지표나 위험대비지표는 각각 1.08과 .65로 위험대비가 낮은 수준이지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지만 부채상환부담이 .52로 매우 높으며 부채규모 수준이 2.58로 총자산대비 2.5배 이상이므로 부채관리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이 나타났다. 성장성지표에서는 저축성향이 마이너스인 반면 실물투자성향이 .24로 실물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형(성장부족형) 비일인가구의 경우 가계수지지표는 1.14로 적자가계가 과반수 이상으로 보이는데 주거안정지표는 .19로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비상자금지표는 .70으로 충분하지 않았으며 위험대비는 .22로 다소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부채규모는 .26으로 다소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부채상환부담은 .51로 매우 높게 나타나 일부 부채를 보유한 가구에서 심각한 부채상환부담을 겪고 있는 것을 보인다. 성장성지표에서 볼 때 저축성향은 마이너스이고 유동성과 증권투자성향은 0이며 실물투자성향은 .19였다. 성장부족형 비일인가구의 가계재무상태는 가계수지 적자, 부채상환부담, 마이너스 저축성향 등의 재정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우선적으로 가계수지 적자상태에 있는 가계의 지출구조 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부채보유가운데 부채상환방식이나 방법 등의 재조정이 요구된다.

C형(복합형) 비일인가구의 경우 가계수지지표는 3.74로 대부분이 생활비를 가계가처분소득보다 몇 배이상 지출하고 있으며 주거안정지표도 .43으로 주거비지출이 매우 높았다. 즉 이들 가구가 소득이 있는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적자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비상자금지표는 47.25로 지나치게 높았으며 위험대비는 적절한 수준이었다. 또 부채규모는 3.83으로 조사대상 저소득층가계유형 가운데 가장 높는데 비해 부채상환부담은 .03으로 매우 낮은 편이었다. 성장성지표의 결과는 저축성향이 마이너스이지만 유동성은 .72로 매우 높은 수준이고 약간의 실물투자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복합형 비일인가구의 가계재무상태는 심각한 수준의 가계수지적자상태, 높은 주거비지출, 과도한 부채규모, 지나친 비상자금의 수준과 유동성으로 평가되므로 우선적으로 가계수지 적자폭을 낮추고 비상자금을 가지고 부채를 상환하여 부채규모를 줄이는 것이 요구된다.

D형(희망형) 비일인가구의 경우 가계수지지표는 .71, 주거안정지표는 .11로 안정적인 상태이다. 비상자금은 16.45로 매우 높은 수준인 반면 위험대비는 .06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부채규모는 .01로 매우 낮고 부채상환부담도 거의 없었다. 성장성지표의 결과는 저축성향이 .16으로 긍정적인 반면 유동성이 .91로 지나치게 높았고 증권투자성향은 거의 없는 반면 실물투자성향도 미비하였다. 희망형 비일인가구의 가계재무상태는 안정적인 가계수지와 부채상태로 평가되는 반면 유동성과 비상자금대비 등 자산구성에서 지나치게 금융자산 위주, 특히 예/적금이 편중된 상태로 성장성이 제한적으로 평가되므로 자산관리의 개선이 요구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최현자 등(2003)이 개발한 가계재무상태평가지표를 기초로 하여 저소득층가계의 가구형태별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사회·인구학적 및 재무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재무상태에 대하여 심층적인 이해를 증진하고자 하였다. 재무상태 분석을 위해 소득과 지출, 자산과 부채 등의 단순지표와 이를 활용한 재무비율로 안정성 지표 6가지와 성장성 지표 4가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KPLIS(한국노동패널조사)의 10차년도(2009년 발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조사 당시 2008년도 중위소득의 50%인 연평균 소득 1천6백22만원 수준을 상대빈곤선을 채택하여 그 이하의 소득수준인 가계 1,470가구를 추출한 후 부실가계를 제외하고 최종 1,443가계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우리나라 저소득층가계 가운데 일인가구는 38.6%, 비일인가구는 61.6%로 분포되었다. 따라서 2010년 전체가구의 일인가구 비중인 15.4%에 비해 매우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저소득층 일인가구의 경우 월평균 가계가처분소득은 약 56만3천원, 생활비는 약 51만4천원으로 2009년 기준 1인당 최저생계비 수준인 490,845원의 115%, 105% 수준에 불과하다. 또 총자산은 약 1,189만5천원이고 총부채는 약 552만5천원 정도로 일반적으로 순자산이 마이너스 상태는 아니었다. 일인가구의 가계재무상태를 재무비율의 준거기준 충족률로 평가해 볼 때 가계수지지표는 46.6%, 주거안정지표는 73.0%, 비상자금대비지표는 46.9%, 위험대비지표는 33.0%, 부채상환부담지표는 88.5%, 부채규모지표는 44.8%, 저축성향지표는 19.8%, 유동성지표는 46.6%, 증권투자성향은 0%, 실물투자성향은 46.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비추어 볼 때 저소득층 일인가구는 저축성향이나 실물투자성향, 증권투자성향은 매우 낮은 것은 물론이고 가계수지, 위험대비, 부채관리, 유동성관리 등에서 과반수 이상가구가 문제점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저소득층 비일인가구의 경우 월평균가계가처분소득은 약 78만1천원, 생활비는 약 95만3천원으로 나타나 2009년 기준 4인가족의 최저생계비인 1,326,609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저소득층 비일인가구의 총자산은 약 3,211만원, 총부채는 약 2,202만6천원 정도로 나타나 순자산이 마이너스 상태는 아니었다. 또 비일인가구의 가계재무상태 평가지표의 준거기준 충족률은 가계수지지표는 32.3%, 주거안정지표는 76.0%, 비상자금대비지표는 41.6%, 위험대비지표는 51.0%, 부채상환부담지표는 85.8%, 부채규모지표는 41.5%, 저축성향지표는 22.9%, 유동성지표는 41.4%, 증권투자성향은 0.2%, 실물투자성향은 41.6%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로 볼 때 저소득층 비일인가구의 가계재무상태는 안정성면에서 주

거안정지표와 부채상환부담을 제외하고 낮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성장성면에서는 모두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상대적으로 일인가구는 비일인가구에 비해 위험대비지표와 저축성향지표의 수준이 낮은 반면 비일인가구는 일인가구에 비해 가계수지지표의 수준이 낮았다.

셋째, 가계재무상태 평가지표의 준거기준 충족수준(모두 미충족, 부분 충족, 모두 충족)에 기초하여 저소득층가계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출한 4가지 가계유형은 안정성지표 6가지 모두를 충족하지 못하고 성장성지표는 전혀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충족한 가계(A형, 최극빈형), 안정성지표를 부분적으로 충족하고 성장성지표를 전혀 충족하지 못한 가계(B형, 성장부족형), 안정성지표를 부분적으로 충족하고 성장성지표를 부분적으로 충족한 가계(C형, 복합형), 안정성지표를 모두 충족하였지만 성장성지표를 전혀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충족한 가계(D형, 희망형)이다. 그런데 저소득층 일인가구의 경우 저소득층가계 유형은 A형 13가계(2.4%), B형 256가계(46.0%), C형 237가계(42.6%), D형 50가계(9.0%)로 분포되었으며 저소득층 비일인가구의 경우 저소득층가계유형은 A형 28가계(3.2%), B형 417가계(47.0%), C형 382가계(43.1%), D형 59가계(6.6%)로 분포되었다. 저소득층가계 유형은 주로 성장부족형과 복합형이 양분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일인가구와 비일인가구별 가계유형 분포는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넷째, 저소득층의 가계유형별 사회·인구학적 및 재무특성을 보면 A형(최극빈층)은 매우 적은 사례수로 인하여 통계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B형(성장부족형) 일인가구는 70대, 여성가구주, 미취업 경향이 높았고, 비상자금준비나 위험대비수준이 낮아 가계재무의 안정성에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C형(복합형) 일인가구는 20대와 70대, 여성가구주, 기타지역(농촌 등) 거주 경향이 높았는데 소득수준이 저소득층 가운데 평균적임에도 불구하고 적자인 가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부채규모도 큰 반면 비상자금대비 및 유동성이 지나치게 높은 상태이다. D형(희망형) 일인가구는 20대와 30대, 여성가구주, 취업, 전/월세 거주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안정성지표나 성장성지표 모두 양호한 편이지만 비상자금지표나 유동성수준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B형(성장부족형) 비일인가구는 60대와 70대, 남성가구주, 미취업, 서울/경기 거주 경향이 높았으며, 가계수지적자나 비상자금대비 수준은 다소 낮았지만 존재하고 있으며 부채규모에 비해 부채상환부담이 매우 높았다. 성장성면에서 볼 때 저축성향이 마이너스로 실물투자는 조금 있지만 유동성 수준이 매우 낮았다. C형(복합형) 비일인가구는 60대와 70대, 남성가구주, 자가 주거 경향이 높았는데 가계수지 적자 상태가 매우 심각하고 주거비지출도 높아 가계지출의 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다. 또 부채규모 및

비상자금지표와 유동성이 지나치게 높아 자산관리 구성에서도 조정이 필요하다. D형(희망형) 비일인가구는 50대와 60대, 취업, 자가, 기타지역(농촌 등) 거주 경향이 높았는데 안정적인 가계수지와 부채관리 상태로 평가되는 반면 유동성과 비상자금 등 지나치게 예/적금 위주의 자산 구성이 문제가 되고 있어 성장성 면에서 제한적인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한 결론은 첫째, 저소득층의 경우 일인가구에 비해 비일인가구가 더 열악한 경제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가족부양을 하는 저소득층가계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저소득층가계는 일인가구와 비일인가구 모두 주거안정이나 부채상환문제보다는 가계수지, 위험대비, 비상자금대비, 유동성부족 등 기초생활안정면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 가계가 더 많은 경향이다. 따라서 기존의 금융채무불이행자에 초점을 둔 저소득층 금융지원정책은 수혜대상이 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저소득층가계를 위한 경제적 지원 정책은 위험대비 및 비상자금대비 등 보험 및 위험관리 측면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본 연구결과 일인가구와 비일인가구, 그리고 재무비율에 기초한 가계유형에 따라 저소득층가계 유형의 특성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바, 저소득층가계를 위한 연구나 사회복지정책 모색을 위해서 가구원수, 재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형별 접근이 유용하다. 넷째, 저소득층 일인가구는 노년 일인가구와 저연령 일인가구, 여성가구주 가계가 혼재되어 있는 반면, 저소득층 비일인가구는 대체로 장년 및 노년 가계, 남성가구주 가계가 주류를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 일인가구에 대한 정책은 노년 여성가구주 가계와 청년 가계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본 연구는 저소득층가계의 경제상태를 가구원수(가족형태) 및 재무상태에 근거한 가계유형별로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다양하고 복합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저소득층가계유형을 재무상태에 따라 최극빈형, 성장부족형, 복합형, 희망형으로 구분하여 재무관리측면에서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최극빈형은 40, 50대의 비일인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가족원을 부양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보장수혜의 수준과 질을 효과적으로 현실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성장부족형은 상대적으로 70대 연령층이 많았고 남성가구주의 비중이 높았는데 이들은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높아 저축이나 투자 등 재무성장성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고연령층에 있어서 위험대비 및 유동성은 확보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성장부족형의 고연령층에 대해서는 유동성확보를 위한 재무관리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장부족형의 저연령층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의 저축을 유도하는 상품을 개발 제공하고 이들의 저축과 성장에 대한 의지와 실행의 방법을 알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복합형은 연령전반에 골고루 분포하는 특징을 가지며 자가 보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농촌

에 거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가계수지의 적자수준이 높으며 자산대비부채규모도 상대적으로 크므로 부채관리를 위한 신용회복지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지출구조의 개선을 위한 소비행태 등 금융교육이 필요하다.

저소득층가계 유형 가운데 희망형의 경우 재무 안정성면에서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었지만 위험대비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예/적금 위주의 자산관리 행태에서 벗어나 성장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산관리 상담과 교육이 지원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유형화된 저소득층가계유형 가운데 성장가능성이 있는 희망형은 정부의 금융지원정책을 통해 자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이 가계유형은 2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청장년층 일인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취업자인 경우가 70% 이상인 특징을 가진다. 이 유형의 재무관리적 측면에서 문제점은 지나치게 유동성 위주 특히 예/적금 위주의 금융자산에 치중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가계에게도 자산관리에 관한 교육과 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경제적 자원이 풍부한 계층을 위한 재무교육과 상담서비스가 사회복지차원에서 저소득층에게도 폭넓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지원정책적 측면에서 정책적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층의 재무상태 및 가구구성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토대로 금융지원정책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지원정책은 금융채무불이행자를 위한 신용구제와 신용회복지원, 저신용자를 위한 저금리 신용대출지원(micro finance)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지원정책은 파산제도의 오남용, 파산조정 전 재무상담의 부재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금융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적합한 지원의 가능성에 의문이다. 이러한 신용구제와 신용회복지원 및 신용대출 지원 전 재무상담을 통해 저소득층 및 채무불이행자의 재무상태 및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채무조정을 결정, 대출한도 및 상환방식의 결정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신용자의 경우 소비성향이나 저축성향, 그리고 위험대비, 비상자금대비 등의 특성이 다양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들을 위한 신용대출지원시 다양한 대출조건, 대출한도나 대출상환방식, 대출금리 등을 결정할 때 각종 재무비율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용구제제도나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확대가 수혜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키는 중요한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면서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재무상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들의 경제적 상태나 경제적 행위에 대한 성향과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는 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저소득층가계의 재무상태를 평가하고 유형화를 하

였는데 각 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재무특성만을 분석하는 기초적인 연구결과를 얻는 한계를 가진다.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이들 유형이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이들의 구체적인 재무관리 행태 및 재무상담의 요구정도가 조사 분석되어 실질적이고 현실에 적용 가능한 연구결과가 제시되는 것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김년희·채정숙(2005). 독신가구의 재정상태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3(1)**, 85-103.
- 김미곤·김태환(2004). 우리나라의 빈곤현황 및 정책과제. *사회보장연구*, **20(3)**, 173-200.
- 김민정·최현자(2007). 가계재무상태 평가지표의 타당성 검토. *소비자학연구*, **18(3)**, 87-110.
- 김용기·박준·장성원·이동원·최홍·문외술(2010). 한국 중산층의 변화와 경제사회적 결과. *삼성경제연구소. 문숙재·양정선(1996). 가계의 부채보유 여부 및 부채액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57-169.
- 민승규·이갑수·김근영·손민중(2006). 소득양극화의 현상과 원인. *삼성경제연구소 CEO리포트*, 제547호.
- 박명희·이승신·배미경(1996). 도시근로자 가계의 과소비와 영향변수-재정비율 분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4(5)**, 209-222.
- 박재간·모성희·원영희(1996). 노인생활실태 및 정책방향 - 저소득층 노인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정책연구*, **4**, 16-32.
- 박정운·김진희(2002). 독신가족의 가족복지 욕구분석을 위한 사례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10)**, 17-31.
- 배미경(2001). 재무비율분석을 이용한 가계재정상태 비교분석: 근로소득자 vs 자영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9(9)**, 49-61.
- 성영애·양세정·이희숙·최현자(2004). 가계재무상태 평가 지표를 이용한 가계유형의 분석. *소비자학연구*, **15(3)**, 155-171.
- 성지미·이윤정(2001). 노인독신가구의 경제상태와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39(2)**, 111-130.
- 소연경(2000). 도시가계의 소득계층별 소비지출구조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12)**, 1-14.
- 심영(2000). 단독가계 노인 소비자의 소득, 자산, 소비지출분석. *소비문화연구*, **3(1)**, 121-145.
- 심영(2002). 독신가구의 경제생활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197-208.
- 안승철·김년희(2001). 재무비율을 이용한 가계의 재정 상태 분석. *영남대학교 지역발전 연구*, 73-97.
- 양세정(2000). 노인가계의 가계경제구조 분석.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추계 심포지움 자료집*, 25-34.
- 양정선(1997). 산술적 저량과 재무비율 추정을 중심으로 한 가계의 재정상태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 논문*.
- 여운경(2003). 노인부부가계와 노인독신가계의 소비패턴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5)**, 1-12.
- 여운경·양세정(2001). 가구유형에 따른 소비지출패턴 비교 분석. *소비자학연구*, **12(4)**, 65-81.
- 윤홍식·김혜영·이은주(2005). 절대 및 차상위 빈곤선을 통해 본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지위 결정에 관한 연구: 저소득 여성가구주 가구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1(3)**, 263-288.
- 이성림(2002). 가계의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지출 불평등, *대한가정학회지*, **40(9)**, 143-160.
- 이성림(2005). 과소비부채가계의 가계경제구조 분석. *소비자학연구*, **16(1)**, 73-95.
- 이성림·성영애(2007). 적자부채가계의 지출구조 및 유형별 특성. *대한가정학회지*, **45(10)**, 45-57.
- 이승신(2003). 가계의 재무구조가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소득계층별 접근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11)**, 151-169.
- 이윤정·김순미(2004). 남녀 노인독신가구의 경제상태와 소비 지출의 영향요인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2(12)**, 93-106.
- 조선일보(2010). 3월 8일자
- 차경옥(2006). 남성 일인가구의 경제구조 분석 - 연령 및 혼인 상태에 따른 비교 -.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253-270.
- 최윤지·최현자(1998). 재무비율을 이용한 농촌 중·노년가계의 재정상태 평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83-96.
- 최현자·이희숙·성영애·양세정(2003). 재무비율을 이용한 가계재무상태 평가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14(1)**, 99-102.
- 통계청(2011). 2010년 가계동향조사 분석. *보도자료*.
- 허경옥·한수진(2005). 재무비율을 이용한 소득계층별 가계 재무구조분석. *한국생활과학회지*, **14(4)**, 613-629.
- 현대경제연구원(2010). 1인가구의 7대 구조적 특징.
- DeVaney, Sharon A.(1993). Changes in Household Financial Ratios Between 1983 and 1986: Were American Households Improving Their Financial Statu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Vol.4, 31-46.
- DeVaney, Sharon A.(1994). The Usefulness of Financial Ratios as Predictors of Household Insolvency: Two Perspective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Vol.5.5-26.
- Fan, X.J, Chang, Y.R & Hanna, S(1992). Optimal Credit

- Use with Uncertain Income.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2(1), 125-133
- Garman, ET and Fogue RE (1994). *Personal Finance*, 4th ed., Boston, MA: Houghton Mifflin Company.
- Griffith, R.(1985). Personal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A Modest Beginning. In Langreher(Ed). *The Proceedings of AFCPE*, 123-131.
- Lytton, R.H., Garman, E. T.& Porter, N.M.(1991). How to Use Financial Ratio When Advising Client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2, 3-24.
- Prather, C. G.(1990). The Ratio Analysis Technique Applied to Personal Finance Statements; Development of Household. Norm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1, 53-70.
- Shipler, David(2005). *The Working Poor: Invisible in America*. Vintage Books USA.

- 접수 일 : 2011년 03월 15일
- 심사 일 : 2011년 04월 04일
- 게재확정일 : 2011년 06월 09일